연중 제31주일 강론(2019년 11월 3일)

김도윤 프란치스코 신부

어떤 사람에게 친구가 셋 있었습니다. 첫 번째 친구는 그 사람이 가장 좋아하고 신뢰하는 둘도 없는 친구였습니다. 두 번째 친구는 좋아 하기는 했지만 첫 번째 친구보다는 소중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친구는 친구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별로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사람이 먼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가장 소중히 여기는 친구에게 함께 가자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는 이유도 말하지 않고 함께 가기를 거절했습니다. 두 번째 친구에게 또 함께 가자고 부탁하니까 마을 입구까지는 함께 가주겠지만 그 이상은 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세 번째 친구를 찾아 갔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었던 그 세번째 친구는 기꺼이 함께 따라가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첫 번째 친구는 ‘재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먼 길을 떠나는 것은 ‘죽음’의 길을 말합니다. 가장 좋아하고 믿었던 ‘재산’은 죽음이라는 먼 길을 떠날 때에는 남겨 두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친구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역시 묘지까지는 따라가 주지만 그 이후에는 혼자 길을 가야 합니다. 세 번째 친구는 무엇일까요? 죽음의 길을 갈 때 기꺼이 함께 따라가는 것. 바로 ‘선행’입니다. 평상시에는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별로 관심도 없을지 모르지만 죽음 뒤에도 ‘선행’은 함께 끝까지 동행합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집트 전설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너는 기쁘게 살았는가. 또 그 기쁜 일이 이웃도 함께 기쁘게 하였는가?”에 대한 질문을 받는다고 합니다. 내가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것으로 행복을 삼고 살았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직접 내려오신 예수님도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주변 이웃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또 얼마나 많은 자선과 선행을 베풀었는지가 나중에 하느님 앞에서 내가 하느님 나라에 적합한 사람인지 아닌지 증명해 줄 것입니다.

11월 위령 성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위령 성월은 먼저 세상을 떠난 분들을 기억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달입니다. 죽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언젠가 다가올 내 자신의 죽음도 묵상하면서, 내 신앙 생활과 인생을 새롭게 성찰해 보는 시간입니다.

죽음은 우리 인간이 절대 피해갈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 드린 적이 있죠? 죽음에 대한 영원히 변치않는 진리 세 가지: “첫째,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 둘째, 그 시간과 장소는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세째,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다.”

죽으면 내 몸뚱이 조차 가져갈 수 없습니다. 너무나 간단하고 당연한 진리라 모두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 당연한 진리를 우리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마치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살고, 또 죽을 때 가진 거 다 바리바리 싸갈 것처럼 살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애지 중지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것들 아무것도 못 가져 갑니다.

사실, 내일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죠. 어제 제가 장례 미사를 하나 했는데, 마흔 일곱된 남자분 장례였습니다. 부인도 아직 젊고, 아이들도 아직 어린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경찰관이었는데, 아주 건강했고, 착하고 성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갑자기 집에서 심장마비로 죽었으니 가족들과 이웃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다음 주에 또 장례식이 하나 있는데, 갑자기 교통 사고로 죽은 젊은 남자분 장례입니다.

죽음은 언제나 예기치 않게 갑자기 다가올 수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그리 유쾌한 이야기는 아니죠. 그리고 죽음 앞에서 모든 인간은 약해집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죽음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더 소중하고, 더 아름답게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 나와 덧없이 살다가, 덧없이 그냥 가버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다. 그러면 인생이 너무 허무 해집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릅니까! 10년 20년 혹은 30년 쯤 더 살수 있을 거라고 장담하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또 10년도 엊그제 같이 금방 지나가 버리는데, 앞으로 10년도 아마 내일 모레 처럼 빠르게 지나갈 것입니다.

이 짧은 인생, 참된 의미를 찾아 열심히 보람있게 그리고 좋은 기억 많이 남기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영원한 행복과 희망을 품고 가야 하는 긴 여행길입니다. 그 여행길이 끝날 때, 그래도 돌아보면 참 아름다웠노라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지요.

오늘 복음에서 자캐오는 자신의 부족함을 이겨내고, 열심히 정성껏 예수님을 찾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게 되었고, “구원 되었다”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캐오는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이들을 위해 쓰고, 횡령한 것이 있다면 네 배로 갚겠다고 회개 합니다. 앞으로 펼쳐지게 될 자캐오의 새로운 인생은 부활의 인생이 될 것이고, 아름다운 구원의 삶이 될 것입니다.

제가 장례미사를 아주 많이 합니다. 일주일에 한 두번은 꼭 합니다. 많은 장례식을 치르면서 드는 생각은 인생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재산도 지위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복음의 자캐오처럼 회개하는 삶,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신앙의 삶, 그리고 자선과 사랑을 베풀면서 사는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오래 기억될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이고 축복된 삶입니다.

마음 따뜻하고 친절하고, 너그럽고, 그리고 마음에 사랑이 가득한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습니다. 사랑받고 싶으면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을 주고 나누는데는 인색하면서, 다른 사람들 보고 사랑해 달라고 하는 것은 억지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 사랑하지도 않고 친절하게 대하지도 않으면서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거짓말이고 억지입니다. 우리는 가끔 억지 부리고 살 때가 종종 있습니다.

다시 찾아온 11월 위령 성월, 깊어가는 가을을 바라보면서, 무엇이 진정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고, 그리고 무엇이 우리를 감동시키는지,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내 삶을 조용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혹시, 그 동안 잃어버리고 살았던 소중한 것들이 있다면, 더 늦기 전에 다시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훗날 하느님 나라로 가야하는 시간이 왔을 때, 내 인생 헛되지 않았노라고, 허무하지 않았노라고, 그리고 행복했었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 “원더풀 라이프” 사시기 바랍니다.